

가족들과 관계 맺기



공동체 내의 유아기 학습 체계에
활력 불어 넣기

유아기 학습 체계 실천 기반 자료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Practice Based Resources*) 프로젝트는 교육고용노사관계부를 통해서 호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유아기 학습 체계를 실행에 옮기는 유아기 교육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Community Child Care Co-operative Ltd (NSW)에서 개발한 자료입니다.



호주 연방 정부 문장, 교육고용노사관계부의 로고, 상표에 의해 보호되는 자료 및 그 밖의 주석이 붙은 것을 제외하고 본 문서에 제시된 모든 자료는 호주 저작물사용 허가표시 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au/>) 라이선스에 따라 제공됩니다.

관련된 라이선스 조건의 세부사항은 저작물사용 웹사이트 (제공된 링크를 이용하여 접속 가능)에서 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호주 저작물사용 저작자표시 3.0 라이선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au/legalcode>)를 위한 완전한 법적 코드와 같습니다.

본 문서는 유아기 학습 체계 실천 기반 자료 - 가족들과 관계 맺기: 공동체 내의 유아기 학습 체계에 활력 불러 넣기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Practice Based Resources - Connecting with families: Bringing the 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to life in your community*) 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ISBN: 978-0-9873543-1-0

유아기 교육자로서 인간관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아이들, 가족들 및 상호 간의 솔직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즉시 떠오르는 것은 보통 아이들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가족과 맺는 인간관계 및 협력관계입니다.

부모와의 협력은 보람 있고, 도전적이며 항상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는 교육자와 가족들이 협력할 때 나옵니다.

“아이들은 가족들과 교육자가 학습을 위해서 협력할 때 잘 성장한다.”

(유아기 학습 체계, p.9)





“한 명의 아동을
등록할 때 사실상
한 가족을 등록하는
것이다”¹

아이들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아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의 한 구성원입니다. 부모
및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아이의
교사들입니다.

한 아이를 대상으로 일할 때
우리는 또한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종종 더 넓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아이의
학습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여가 있으려면 먼저
가족이 우리가 하는 일의
일부라는 느낌을 갖도록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생각해야 합니다.

¹ Intoul, A., Kameniar, B. & Bradley, D. (2009) 좋은
것을 병에 담기: 마음이 훈훈한 이야기 및 다인종
킨더가튼에서의 모험담 (Bottling the good stuff: stories
of hospitality and yarnin' in a multi-racial kindergarten).
호주아시아 유아기 교육 저널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4 (2), 24-30.



우리의 보호를
받는 아이들에게
소속감이 중요한
것처럼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소속감은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우리의 서비스에서 편안함을 느끼려면
우리의 일에 가족이 기여할 수 있다는 느낌
이외에, 소속감 및 환영 받는 느낌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가족들이 기뻐하며 환영 받으면 아이들도 역시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가족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방침 및 절차에 대한 논평 제공을 요청한다거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피드백과 기여가 소중하기는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공식적인 방법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경우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존중과 이해에 기초합니다. 참여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경청한 다음에 가족들을 참여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성공적인 협력관계의 기초를 놓는 것은 가족 구성원과의 하루하루 인간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및 그 가족을 개별적으로 알아가는 일에 진정한 관심을 보일 때 소속감과 동반자 의식이 생겨납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만나는 연결점에서 맺어집니다.

유아기 교육자로서 우리는 이미 각 가족 구성원과의 한 가지 분명한 연결점인, 바로 그들의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유대를 형성하려면 시간을 갖고 가족과 아이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우리의 보호 아래 자신의 자녀를 맡길 때, 무엇보다 먼저 알고 싶어하는 사항은 우리가 자녀를 보살펴주고 있으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즉,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문제없이 잘 지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들은 우리가 그들의 자녀를 실제로 아는지,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아는지, 자녀를 개별적으로 알기 위해서 시간을 가졌는지 등의 사항을 알아보려고 마음을 씁니다.



가족들은 우리에게 자녀의 잠재력 발휘를 돕는 방법에 대한 능력과 지식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마음을 씁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 깊은 유대감과 이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일상적 인사를 나누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시간이 우리가 자녀를 알고 있고 우리의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는 점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사라가 오늘 잘 지냈어요” 또는 “오늘 모래밭에서 즐겁게 놀았어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가족들은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거의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관심과 학습에 대해서 대화할 시간을 낼 때 가족들은 아이의 일과 및 교육자인 우리 역할의 중요성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복잡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족과의
힘들었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기억은 단지
긍정적인 인간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줄
뿐입니다.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관계 속에서 일할
때 가족과의 인간관계가
소중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기회를
찾고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일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가족들과의 협력관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필수입니다.

관계성 쌓기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 **진심을 담아 인사하기** - 인사가 중요합니다. 인사를 이미 수십 번 나누었을지라도 처음 인사하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그렇게 대해주는 것을 모두가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 **사람들의 이름 외우기** -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즉각적인 관계를 맺어주고 상대방에게 한 개인으로서 관심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먼저 다가가기** -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인사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낍니다-특히 상대방이 수줍어하거나 불안해할 때 그렇습니다.
- **아이의 일과에서 실제 있었던 일 공유하기** - 가족 구성원과 대화를 나눌 때 자녀의 일과에 대해서 공유할 진솔한 화제를 찾으십시오. 단순히 아이가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말하기 보다는 여러분이 아이가 한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화제를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이를 진정으로 돌보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그 느낌은 가족들에게 긴 여운을 남깁니다.
- **말할 준비와 함께 경청할 준비하기** - 가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견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를 교육자로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주고 받는 대화에서 나옵니다-한 쪽이 줄곧 이야기하고 한 쪽은 듣기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기** - 남을 판단하는 일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잠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보십시오. 가족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들이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부모의 관점

“유아기 교육자로서 저는 제가 일하는 아이들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교육자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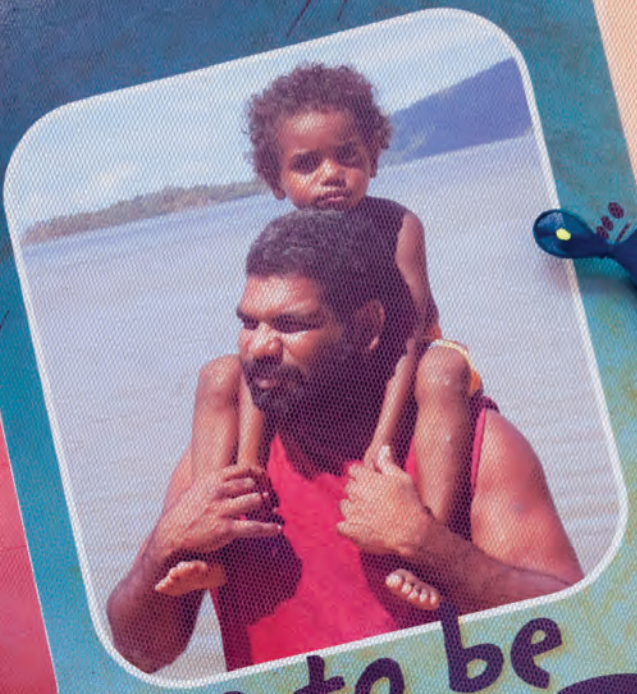
저는 부모로서 제 아이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제 아이를 돌보고, 누군가는 제 아이가 슬플 때 위로해 주며, 또한 제 아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처음으로 무엇을 할 때의 그 흥분을 함께 나누리라는 것 말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문을 들어설 때 환영 받는 느낌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제 아이에게뿐 아니라 저에게도 미소를 보내며 인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꺾어보아서 얼마나 바쁜지 알긴 하지만 누군가 시간을 내어서 아이의 일과에 대해 의미 있는 것을 말해 주고, 제 아이를 ‘잘 안다’는 것 즉, 제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먹으려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바로 제 아이의 뉘뉘이를 형성하는 바로 그런 소소한 것들을 안다는 사실에 고마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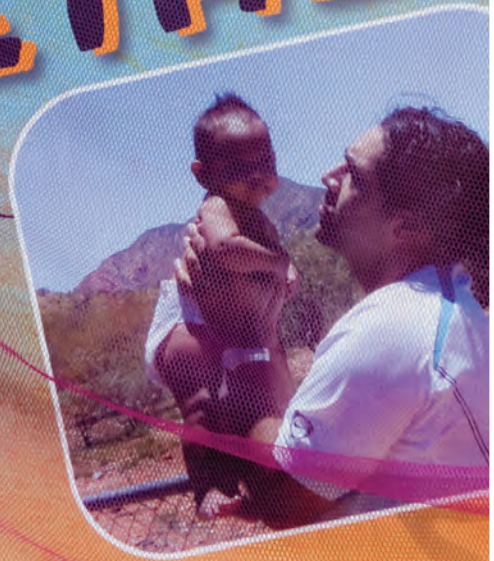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이 제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보살핀다는 것 즉, 제 아이의 장래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고, 제 아이가 거기에 도달하도록 함께 돕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저는 제 아이 한 명만 생각하면 되지만 여러분은 많은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아이를 보살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소한 일상적인 일들을 대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제 아이와 저 그리고 제 가족을 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a time to be **TOGETHER**



Books provided by SMART!
Reading Programme: Family and
Children's Bookshop Series (2015)
in partnership with the NSW
Family Action Centre (2015)
Fund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y Services

Smart Start
for Southern Cross
University and
Northern Rivers Local
Government



